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송장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

문헌의 첫 기록
18세기

수록 용례
8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송장'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

송장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송장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송장 사전 표기 요약	—	—	—	●→	●→	●→
송쟝 문헌 수록 표기	—	—	—	—	●→	●→
숑쟝 문헌 수록 표기	—	—	—	—	●→	●→
숑장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송장
  18세기19세기20세기현재
- 송쟝

19세기20세기

- 숑장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송장, 송쟝, 숑쟝, 숑장

송장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송장’은 18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근대 국어 시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가 ‘ㅏ, ㅓ, ㅗ, ㅜ’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소’와 ‘쇼’, ‘자’와 ‘쟈’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아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19세기부터 ‘송쟝’, ‘숑쟝’이 나타난다.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20세기까지 ‘숑쟝’, ‘숑장’, ‘송쟝’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송장’으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송장

전체 용례 8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8세기 송장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송장

출처 1737 어제내훈 1:56ㄴ

용례 01

문헌 용례

輛車ᄂᆞᆫ 송장 술위라.

현대어 풀이

‘이차’는 송장 수레이다.

19세기 송장, 송쟝, 숑쟝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송장, 송쟝, 숑쟝

출처 1895 천로역정 2:146ㄴ

용례 02

문헌 용례

올나가셔 아래ᄅᆞᆯ 굽어보매 송장과 ᄒᆡ골이 그득ᄒᆞ엿ᄉᆞ니.

현대어 풀이

올라가서 아래를 굽어보매 송장과 해골이 가득하였으니.

출처 1895 천로역정 2:157ㄴ

용례 03

문헌 용례

까마귀ᄂᆞᆫ 송쟝을 먹으나 비둘기야 엇지 송쟝을 먹으리오.

현대어 풀이

까마귀는 송장을 먹으나 비둘기야 어찌 송장을 먹으리오?

출처 1899 제국신문 12월18일 2면

용례 04

문헌 용례

기왕 쥭은 거슬 숑쟝을 가지고 가셔 무엇ᄒᆞ리오.

현대어 풀이

기왕 죽은 것을 송장을 가지고 가서 무엇하리오?

20세기 송장, 숑장, 숑쟝 외 1종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송장, 숑장, 숑쟝, 송쟝

출처 1903 신학월보 3:339 용례 05

문헌 용례

차라리 아조 죽은 송장은 수에나 치지 안켓지만.

현대어 풀이

차라리 아주 죽은 송장은 수효로 치지 않겠지만.

출처 1908 귀의성 하:55 용례 06

문헌 용례

그러케 참혹한 숑장은 누가 보던지 소름이 씨치지 아니할 사ᄅᆞᆷ이 업슬 터이라.

현대어 풀이

그렇게 참혹한 송장은 누가 보든지 소름이 끼치지 않을 사람이 없을 터이다.

출처 1908 귀의성 하:58 용례 07

문헌 용례

강동지의 ᄂᆡ외가 마ᄋᆞᆷ 붓칠 만치 ᄌᆡ물이ᄂᆞ 쥬어셔 안심시킨 후에 츈쳔집 모ᄌᆞ의 숑쟝 차졋다ᄂᆞᆫ 말을 ᄒᆞᄂᆞᆫ 거시 조흘 쥴로 말ᄒᆞ엿더라.

현대어 풀이

강동지의 내외가 마음 붙일 만큼 재물이나 주어서 안심시킨 후에 춘천집 모자의 송장을 찾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말하였다.

출처 1913 비파성 120

용례 08

문헌 용례

그러면 그 송쟝이 누구일싸오.

현대어 풀이

그러면 그 송장이 누구일까요?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송장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송장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車

뜻·음 수레 거 / 수레 차

총 7획 · 부수 車



획순 자료 미제공

hanja.wordrow.kr/한자/車/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사전 상세 항목이 없는 본문 한자: 輒.